

정수기 관리인은 근로자?… 코웨이 이슈에 업계 예의주시

인력 1.3만 보유, 업계 1위 코웨이 자율근로소득자 간주 근로자 불인정

노조 “노동청서 ‘노조’ 인정받아” 코웨이 “당초 출퇴근 부담 없는 프리랜서 개념 개인사업자 시작”

노동위에 노조 문제제기 재심청구 ‘근로자’ 판단엔 처우 등 향후 변화



서울 중구에 있는 코웨이 본사. /뉴시스

정수기, 비데 등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를 놓고 생활가전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업계 1위인 코웨이에서 사측과 노조가 해당 이슈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며 노동 관련기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품 관리 인력만 1만30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코웨이를 놓고 소속 코디, 코닥에 대해 해당 기관이 ‘근로자’라고 판단할 경우 기존엔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직)로 인정됐던 이들의 처우 등에서 향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대법원이 코디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 독립사업자로 간주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터여서 노동기관의 판단에 더욱 귀추가 쏠린다.

생활가전업체 중에선 코웨이 외에도 청호나이스와 SK매직이 각각 4000~5000명 정도의 관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코웨이(CS닥터지부, 코디·코닥지부, CL지회), SK매직(서비스지부), 청호나이스의 경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서비스노조)에 소속돼 있어 관련 이슈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웨이가 코디·코닥노조와 ‘근로자 인정’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를 하고 있다.

앞서 코웨이는 제품 설치기사들로 구성된 CS닥터 노조와 장기간 협상을 통해 지난 8월 말 합의점을 찾고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다. 1500명 가량이 가입돼

있는 CS닥터지부와 임단협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조합원이 더 많은 코디·코닥 노조 이슈가 불거진 것이다.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코웨이 코디, 코닥 중에 해당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35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지난 7월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해 8월4일 교섭단위 분리신청 승인을 얻어냈다.

코디, 코닥이 사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면서도 ‘자율근로소득자’로 간주돼 근로자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방관업체 최초로 노조 설

립 필증을 교부받는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면서 “노조가 지난 11월 출범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노사교섭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데 사측은 노사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웨이 코디, 코닥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 형태다. 이는 코웨이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생활가전회사들이 마찬가지다.

생활가전업체 한 관계자는 “당초엔 경력단절여성들을 활용해 정수기, 비데 등을 판매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서 서비스가 출발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출퇴근 부담이 없고 원하는 계정만큼 본인의 시간에 맞춰 제품을 관리하고, 일부는 ‘투잡’ 등을 뛰기도 하는 등 프리랜서에 가깝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개인사업자인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돼 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코웨이는 노조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달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방문판매원인 코디, 코닥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코웨이 관계자는 “대법원이 2012년 당시 코디, 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사는 코디, 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후 공식적인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2년 5월 코웨이의 전신인 웅진코웨이 시절 코디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코디는 웅진코웨이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여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코디)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원고를 근로자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있은 후 8년이 지나 다시 코디, 코닥에 대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피부 저자극 100% 천연펄프 ‘안심 물티슈’ 휴넷 ‘고놈’ 조형물 설치 SNS 이벤트

유한킴벌리 ‘스카트 에코종이물티슈’ 전성분 EWG그린등급 첨가물만 사용



유한킴벌리는 친자연 물티슈 ‘스카트 에코 종이 물티슈(사진)’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천연펄프 원료 사용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했으며 특히 물티슈 사용량이 많은 사무실, 병원, 요식업소 등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일반적인 물티슈와 달리 인조섬유를 전혀 첨가하지 않

고, 100% 천연펄프 원단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 이룸도 ‘에코 종이 물티슈’로 불렸다.

스카트 에코 종이 물티슈는 무형광 원단에 합성향도 첨가하지 않았으며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의 첨가물만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피부자극 테스트 결과에서도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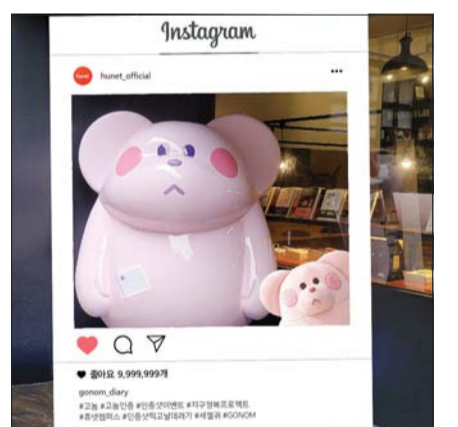
자극 제품으로 분류됐다.

한편 유한킴벌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환경경영 3.0에 따르면 주요 화장지류 제품의 경우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소재 100%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유한킴벌리는 이를 위해 FSC 산림 인증 펄프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 별로 플라스틱 원자재 사용을 줄이고 생분해성 소재를 늘리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제품은 오피스디포, 알파문구, 드림디포 등의 오피스 채널 및 이베이 코리아 사업자물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당첨자에 고놈인형·수건세트 증정



휴넷 고놈 인증샷 이벤트.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오프라인 교육장 휴넷 캠퍼스(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소재)에 공식 캐릭터 ‘고놈(Gonom)’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를 기념해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휴넷 캐릭터 ‘고놈’은 우주에서 온 생명체로 휴넷 SNS 담당자로 갖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다. 공식 채널 인스타그램에서 신입사원의 일상이 담긴 일러스트로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휴넷 캠퍼스에서 ‘고놈’과 함께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린 후 휴넷 공식 페이스

북 및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에게는 고놈 인형, 고놈 수건 세트를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현대백 킨텍스점 새단장

7층에 체험형 매장 약 100㎡ 규모 매트리스 ‘로얄에이스’ 시리즈 전시

에이스침대는 경기 일산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킨텍스점내 매장을 새단장해 문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백화점들은 신규 고객을 늘리고, 방문 고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형 매장을 입점시키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고객들이 제품을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형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에이스침대는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7층에 위치한 에이스침대 매장을 약 100㎡(약 30평) 면적의 체험형 프리미엄샵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에이스침대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에 구성된 고객 체험존에서는 에이스침대의 프리미엄 매트리스인 ‘로얄에이스’ 시리즈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리뉴얼 매장에서는 로얄에이스 라인 이외에도 ▲에이스침대 광고 속 박보검 침대로 유명한 ‘라노페’ ▲프렌치 모던 스타일의 패브릭 침대 ‘루나토’ 등의 에이스침대의 다양한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프리미엄 매트리스로 알 에이스는 인기 매트리스 라인인 하이브리드 테크의 상위 모델로, 세계 15개국에서 특허를 받은 에이스침대의 ‘하이브리드 Z 스프링’을 적용했다. 또한, 양질의 수면에 방해가 되는 꺼집·



새로 단장한 에이스침대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매장.

소음·빈틈·흔들림·쫄림 현상을 개선한 ‘5제로 시스템’과 상하 양면 사용이 가능한 ‘투웨이 쿠션 시스템’이 적용돼 최상의 숙면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매장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증정하고 풍성한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공공데이터 연동 주차정산시스템 운영

국립중앙과학관, 시설 첫 구축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립전시시설 최초로 공공데이터와 연동하는 주차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료를 감면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증명서를 제출해 입증해야 했으나, 이번에 공공데이터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증명서 제출 없이 차량정보를 자동 인식해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차량정보는 공공데이터인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주차정산 시스템을 연동해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된다.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 등이 스스로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시간 절약, 민원 해소, 행정력 절감과 비대면 주차료 정산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누리집에 있는 유료회원권과 유료 교육생의 차량정보도 정산 시스템과 연동해 주차료를 자동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차장 관리규정도 대폭 개정해 대형버스 요금인하, 친환경차량 요금 감면, 30분 이내 출차 시 요금면제 등을 적용하며 정부의 교통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